

企業經營과 産業合理化

朴 斗 秉

〈차 례〉

- I. 問題의 提起
- II. 産業合理化의 再展開
- III. 産業合理化의 施策과 企業人의 姿勢

I. 問題의 提起

오늘날 韓國의 企業經營은 國內外 經濟與件의 劇的인 激變을 背景으로 하여 일찌기 보기 드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不況對策 또는 景氣對策의 確立을 要求하는 소리가 企業經營問題와 關聯하여 드높아 가고 있다.

本人의 見解로는 오늘날 韓國의 企業經營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들은 대개 두가지 範疇로 大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하나는 相對的인 의미에서나마 純粹한 經營的인 또는 經營內的인 要因에 屬하는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絕對的 또는 相對的으로 經營外的인 要因에 起因했거나 또는 關聯된 문제들이다.

前者의 範疇에 屬하는 問題에 대한 解決의 責任은 거의 全的으로 企業人 또는 經營人의 責任에 屬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後者에 屬하는 問題들은 個別企業의 經營의 次元에서 解決할 수 없고 國民經濟的 眼目에서 다루어야 할 命題, 즉 産業合理化란 命題에 屬하는 問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企業經營을 論할 때 國民經濟的 次元에서의 産業構造의 改善, 高度化와 産業再編成등 産業合理化를 떠나서는 論議가 成立될 수 없다.

따라서 이 論文도 「企業經營과 産業合理化」란 題目을 붙이게 되었는데 近年 우리 業界에 不況의 소리가 높아진 것은 71년 6월의 換率引上을 前後한 2/4分期頃이다.

이때 業界의 資金難과 製品의 流通過程에서의 滯貨, 外上代金回收의 長期化 어음不渡率의 증가등이 顯저화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主要經濟指標上으로 보면 71년을 통하여 産業生産指數와 鑛工業出荷指數는 크게 늘어 났으며 輸出도 계속 伸張했으나 都賣額指數의 伸張은 매우 小幅에 머물렀다.

또 建築活動도 크게 둔화되었고 輸入增加, 國際收支逆調도 惡化傾向을 나타냈다. (表 1, 2, 3參照)

즉 生産은 계속 活潑한 伸張을 보였지만 供給過剩, 需要不振등으로 섬유, 建築

<表 1> 생산 및 출하증가율 (Production & Shipment Increasing Rate) %

비 전 분 기		1 9 7 0					1 9 7 1				
		1/4	2/4	3/4	4/4	비전년	1/4	2/4	3/4	4/4	비전년
생 산	전 산 업 (계절변동조정)	-8.2 (0.1)	17.2 (7.6)	0.2 (2.1)	7.0 (5.6)	16.7 (16.7)	-0.1 (8.2)	14.1 (4.8)	-2.4 (-0.1)	-1.5 (-3.7)	18.6 (18.8)
	광 업	-0.6	7.9	-9.8	16.9	15.4	-7.1	2.5	-2.5	18.4	6.1
	제 조 업	-9.1	18.9	0.5	6.4	16.6	0.3	15.4	-2.9	-2.8	19.6
	전 기 업	-1.9	2.9	3.4	8.0	19.1	-1.2	5.6	3.9	4.2	15.0
출 하	전 산 업	-11.5	18.2	1.7	6.3	15.0	-2.8	20.0	-3.6	-1.7	19.8
	광 업	1.6	5.8	-7.1	11.5	14.4	-4.1	2.9	2.3	8.3	7.2
	제 조 업	-11.8	18.6	2.0	6.2	15.0	-2.8	20.5	-3.7	-1.9	20.2

자료: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表 2> 서울 도·소매 증가율 (Seoul Wholesale & Retail Price Increasing Rate) %

비 전 분 기		1 9 7 1				비전년동기 (1~11)
		1/4	2/4	3/4	4/4	
도 매	총 지 수	-8.2	7.2	-0.2	-0.5	-4.3
	음식료품	-2.0	4.5	2.5	-3.4	-3.1
	기 타	-10.3	9.4	-2.6	8.1	-4.7
소 매	총 지 수	-7.3	2.6	-3.7	2.4	-9.8
	음식료품	7.2	-2.1	5.1	1.6	2.0
	기 타	-14.2	5.4	-8.4	3.0	-15.5

자료: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表 3> 전국건축허가내역 (Building construction Permits)

		1 9 7 0		1 9 7 1	
		연 면 적	증감율(%)	연 면 적	증감율(%)
구 조 별	철 근 철 골	4,853	3.9	4,415	-9.0
	연 와 및 석 조	4,482	25.8	3,873	-13.6
	목 조	586	18.9	447	-23.7
	기 타	866	2.1	884	2.1
용 도 별	주 거 용	5,885	23.2	5,594	-4.9
	산 업 용	3,538	1.3	2,950	-16.6
	문교, 사회, 기타	1,364	7.0	1,074	-21.2
합 계		10,787	12.7	9,619	-10.8

자료: 전철부

資料등 主要工產品의 投資現象이 2/3分期부터 나타나서 前例없는 盛行을 보였고

특히 섬유중심의 中小企業의 倒産廢業이 續出하였으며, 그러한 가운데 輸出은 계속 伸張했지만 輸入增加, 國際收支赤字는 그와 正比例하여 크게 늘어남으로서 問題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企業經營事情이 70년以來로 계속 惡化되고 있어서 不況說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것은 71年度 決算에서 우리나라 舉皆의 上位企業人 大企業 法人體의 缺損이 크게 늘어 났다는 事實에서 밝혀지고 있으며 또 國稅廳에 依하면 總資産 10億圓以上の 180個決算法人中 71個大企業이 缺損으로 申告되었다.

71年 下半年부터 顯在化하기 始作한 우리 經濟와 企業經營上的 變調를 一言而蔽之로 要約하면 生産, 出荷, 輸出等 매크로(巨視)的 指標는 上昇을 보였는데 企業收支등 미크로(微視)的 指標上으로는 不況의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變調를 두고 이것을 景氣순환의 下降向面으로서의 不況이나 또는 經濟 및 企業의 構造 또는 體質에서 오는 變調나, 이를테면 所謂 構造的 不況이나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많은 見解가 있다.

그러나 여러 專門家들이나 論說家들의 輿論의 動向으로 보아 大體로 構造的 要因으로 말미암은 變調 또는 不況이라는 見解쪽으로 集約되고 있다.

즉 過去 10年間의 急速한 工業化의 過程에서 一部産業에 過剩施設, 供給過剩現象이 일어났고 또 輸出産業에서는 國內의 農業生産 및 重化學工業의 落後로 原資材의 海外依存度가 높아져서 輸出增加가 輸入需要增加를 誘發하고 輸出産業의 國內餘他産業에 미치는 相互聯關效果가 극히 낮으며, 企業의 側面에서는 他人資本에 依存한 過剩設備投資의 結果, 內外債에 對한 金利負擔이 높아져서 企業收支를 惡化시켰고 農工間의 格差로 農村의 購買力이 底位에 머물러 內需市場이 협소화하는 등 모든 것이 겹쳐서 變調내지 不況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勿論 여기에는 世界的인 換不安과 多國間 平價調整에 따른 企業의 元利金償還負擔의 加重, 先進國間의 保護主義貿易政策의 採擇에 따른 輸出市場의 둔화, 先進諸國에 있어서의 一般化된 不景氣等이 加勢한 것이다. <表4 참조>

<表4> 대미 「달러」 환율(Exchange Rate of Won to U.S Dollar)

일 시 일	외국환대고객매도율	일 시 일	외국환대고객매도율
1961. 2. 2	130	1968. 12. 31	281.90
1964. 5. 3	256.53	1969. 12. 31	305.20
1965. 12. 31	272.60	1970. 12. 31	317.40
1966. 12. 31	272.00	1971. 12. 31	374.10
1967. 11. 24	272.75	1972. 7. 31	400.10

자료: 한국은행

現在의 不況의 原因을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構造的인 要因으로 돌린다면 그와같은 不況期에 處한 企業經營의 戰略과 姿勢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企業家들이나 經營學者들, 나아가서 政策을 立案하는 當局者들에게 共通된 하

나의 課題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構造的 要因이란 財務構成의 問題를 除外한다면 本人이 序頭에서 말한 바 經營外的인 것, 個別企業의 次元에서 經營合理化的 努力만으로서는 다룰 수 없는 問題이다.

여기서 本人은 國民經濟的 次元에서 産業合理化란 問題를 提起하고 이것과 關聯시켜서 企業經營上的 諸問題點을 論하고자 한다.

II. 産業合理化의 再展開

사실 過去·數十年來 어느나라 없이 民間經濟活動에 대한 政府의 介入渡는 점점 強化되어 왔으며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政府主導下에 急激한 工業化가 推進된 나라에 있어서는 民間經濟活動에 대한 政府의 介入性 또는 指導性은 實로 해야 할 수 없이 컸던 것이다.

사실 오늘의 狀況에 있어서 個別企業이 아무리 原價節減運動을 벌인다 하여도 産業構造上的 矛盾과 摩擦을 是正하는 産業再編成의 뒷받침이 없는 努力은 극히 미미하다.

이상과 같은 우리 經濟 및 企業의 構造上的 諸問題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産業再編成 및 産業構造의 改善, 高度化, 다시 말하면 産業合理化의 妥當性에 유의하면서 지금부터 民間企業이 지니고 있는 취약점과 現實的인 問題點을 요약하고 産業合理化施策과 企業人의 姿勢에 대하여 論하기로 한다.

(脚註 1) —————

(1) 産業合理化의 概念

大韓商工會議所는 67年 後半에 部分的인 貿易自由化조치가 취해짐을 계기로하여 國際競爭力의 強化가 시급히 요청되는 時代的 背景아래서 産業合理化運動을 提唱하고 그 運動을 主導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産業合理化란 무엇이나 하는 概念에 대해서는 世間에 그 認識과 評價가 區區하여 往往 混亂과 誤解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 大韓商議가 主導해온 産業合理化 運動자체도 그간 社會經濟的 與件의 變化를 應答하 反映하여 再檢討·再定立할 必要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産業合理化의 概念과 그 沿革을 살펴 그 올바른 概念을 밝히고 나아가서 오늘날 韓國의 現實을 올바르게 反映한 새로운 産業合理化政策의 方向을 提示하여 轉換期에 신 70年代의 우리經濟가 나아갈 길의 指標로 삼고자 한다.

(2) 産業合理化——그 內容의 變遷

歴史的으로 볼 때 1925년에 獨逸에서 시작되어 점차 全世界에 퍼졌던 産業合理化運動은 新技術의 導入·開發이나 設備近代化, 經營管理의 改善, 人員整備등을 통한 個別企業의 合理化를 뜻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利潤率의 底下를 막기 위해서 勞動生産性을 높이고 生産費를 底下하려는 企業家들의 自衛手段으로서 民間의 自發的運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産業合理化는 個別企業單位의 企業合理化의 集團的運動으로서 어디까지나 民間主導的運動이었으며 그렇으로써 그것은 때로 消費者를 對象으로 하고 消費者에 對抗하는 運動으로 호른 飛단도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2次大戰前 1925~30年代에 先進資本主義諸國에서 볼 수 있었던 産業合理化運動은 그 內容이 그 當時(1925~30年代)의 世界經濟의 諸特徵에 對應하는 것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當時의 世界經濟의 諸特徵은 2次大戰 이후, 특히 1955~69年代의 그것과 對比하면서 要約해 보면

첫째 國際經濟的側面에서는 ① 1950~60年代의 特徵이 貿易自由化, 資本自由化 및 IMF體制下의 平價體系의 相對的安定的 時代라고 한다면 ② 1925~30年代는 保護主義貿易의 一般化 乃至는 世界經濟의 「블록」(Bloc)化 또는 分裂과 世界的인 換不安 등으로 特徵지워질 수 있었고,

둘째 國內的으로는 1950~60年代에 있어선 ① 모든 나라가 管理通貨制를 全面的으로 채택하고 있고 ② 거의 모든 나라에 있어서 政府가 最大의 消費者, 支出者이자 最大의 投資者로서 國民經濟의 成長에 絕對的인 役割을 하고 있으며, 뒷날엔 經濟에 對한 國家의 介入度가 強한 時代이다.

이에 반하여 1925~30年代는 ① 아직 모든 나라에서 企本位制가 全面的으로 무너지지 않았고 管理通貨制가 전면적으로 채택되기 전이며 ② 消費者·投資者로서의 政府의 國民經濟속에서 役割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고, 要컨대 國家의 經濟에 대한 介入도가 훨씬 덜 했던 時代이다.

2次大戰前 1925年代와 2次大戰後 1950年~60年代라는 두 時代사이의 이와같은 差異와 各時代의 特徵을 反映하여 1925~30年代의 產業合理化와 1960年代의 產業合理化는 그 概念의 內容을 달리 한다.

(3) 資本·貿易自由化와 產業再編成

즉 前者는 個別企業 또는 企業集團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經營合理化와 이를 통한 利潤率의 提高 또는 利潤率底下的 防止에 力點이 있고 後者는 對象을 消費大衆에게 두기보다는 開放體制下에서의 競爭國을 對象으로 하는 國際競爭力의 強化에 力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後者의 경우는 個別企業의 自發的 行爲이상으로 政府의 主導 또는 指導가 強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1955~60年代의 產業合理化 個別企業의 合理化이상으로 一國의 產業再編成과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포함한 國民經濟의 構造的 合理化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次大戰後 先進資本主義諸國에서 產業合理化문제가 제기된 것이 貿易自由化, 특히 資本自由化가 本格化한 1960年代에 美國資本이 大膽 海外로 진출하여 소위 世界企業(World enterprise)를 형성한 事態에 對應하는 現象이었다는 것은 注目할만하다. 그 代表的인 例는 1965년부터 「드폴」治下의 「프랑스」에서 시작된 社會經濟近代化 5個年計劃이다. 「드폴」은 資本自由化의 論議를 타고 美國資本이 「프랑스」에 붙어져 붙어와서 自動車工業, 食品工業, 鋼鐵工業等 分野에서 프랑스資本을 威脅하자 社會經濟近代化 5個年計劃을 65년부터 실시하여 강력한 產業合理化 政策을 展開, 「프랑스」工業의 施設近代化, 大型化와 產業再編成을 위해 介入과 支援을 아끼지 않았었다.

英國이 1966年 國營IRC(產業再編成公社)를 설립, 老朽한 英國產業의 體質近代化에 나선 것도 惡化하는 國際收支事情과 「파운드」貨의 動搖등 「프랑스」와 類似한 國內外經濟事情을 背景으로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볼 때 2次大戰以後의 產業合理化운동은 資本自由化와 貿易自由化를 背景으로 하고 있는 만큼 ① 資本 및 商品貿易에 있어서의 國際競爭力의 強化가 첫째의 動機가 되어 있고 ②그러한 만큼 民間水準의 企業經營合理化運動의 次元을 넘어서서 政府의 「이니셔티브」 또는 指導에 의한 產業合理化政策으로서 採擇, 推進되었던 ③ 그 政策이 具現되어가는 過程도 個別企業의 經營合理化 못지 않게 產業의 再編成과 產業構造의 高度化라는 形態를 취한 것이 큰 特色으로 되어 있다. 어떤 意味에서 이 時期의 產業合理化運動은 資本自由化, 貿易自由化를 내세우는 開放的인 GATT體制下에 있어서의 經濟的 「내쇼널리즘」의 變型된 表現이라고 볼수도 있는 一面이 있는 것이다.

(4) 韓國의 產業合理化政策

70年代의 轉換期에 處한 韓國經濟를 위해 우리는 立場에서 新產業政策의 展開를 提唱했고 다시 本章에서 그 新產業政策의 展開를 위한 手段으로서 提案하고자 하는 產業合理運動 또는 政策의 性格과 內容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5) 產業間不均衡의 調整

70年代 韓國의 產業合理化도 1960年代의 先進諸國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時代의 特性을 背景으로 하고 있는 만큼 資本 및 商品貿易의 國內外市場에 있어서의 國際競爭力의 強化가 그 첫째의 動機가 될 것이며, 그밖의 ②項 ③項의 特性을 아울러 갖추어야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거나와 韓國의 產業合理化는 보다 具體的, 特殊的으로 그 特性을 限定지을 必要가 있다.

즉 韓國經濟의 窮極的인 最大의 課題는 自立的인 國民經濟의 均衡된 發展과 나아가서는 國民福祉의 向上에 있다. 따라서 70年代 韓國의 產業合理化運動의 窮極的 目的은

첫째 國民經濟構造의 지나친 對外依存性을 바로 잡는데 目標을 삼아야 할 것이고

두째로는 첫째의 目標에 接近하는 手段으로서 一次產業의 相對的 萎縮과 二次產業의 지나친 對外依存性을 줄이고 一次產業과의 適正한 相互關聯性을 갖게 하고, 三次產業의 지나친 肥大을 是正하는 產業間의 不均衡의 調整에 두어야 할 것이며,

세째로는 첫째와, 두째에 列舉한 두 目的에 寄與하는 테두리안에서의 產業構造의 高度化 즉, 工業化率, 重化學化率의 適正한 提高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產業合理化政策, 또는 運動의 當面目標로서는

(6) 企業再編成

첫 10년에 추진 外資主導型 高度成長政策의 副作用인 過剩投資, 不實投資 過剩生産이 깎이던 不實企業沙汰의 整理를 위한 果敢한 企業再編成이 아닐 수 없다. 不實化의 惡循環을 斷絶하여 國民經濟의 見地에서 合併, 系列化轉業, 廢業등을 통한 企業再編成을 단행하는 것이 國民經濟 전체의 不實化를 最少限으로 局限시키는 길이다. 이에 관련하여 최근 政府가 斷行한 「金融正常化措

Ⅲ. 産業合理化的 施策과 企業人的 姿勢

우리나라 企業의 現實은 지난 60年代에 비해 볼 때 經濟規模나 生産施設은 엄청난 水準으로 變化했지만 國際競爭力이란 次元에서 볼때 그 隔差와 脆弱性은 현저하다.

첫째 企業規模의 零細性때문에 製品生産의 原價高등 國際競爭力은 날로 底下되고 있다.

個別企業의 生産規模는 극히 영세하면서도 全體的인 生産能力은 國內需要를 超過하는 水準의 過剩施設때문에 國內市場은 勿論 海外市場까지 過當競爭을 벌리고 있어서 企業損失을 累積的으로 擴大시키는 하나의 原因이 되고 있다.

置는 不實企業과 銀行간을 斷絶시켜 金融機關의 不實化를 防止하고 産業再編成을 準備하는 第一段階의 措置로 評價할만 하다.

(7) 産業再編成

둘째는 産業再編成이다. 各部門別産業을 그 重要도에 따라 合併, 廢合, 系列化를 通해서 適正한 規模와 올바른 位置에 자리잡게 하고 相互聯關係 하는 産業再編成은 企業再編成과 直接 관련된다. 企業再編成이 이미 發生한 不實 企業에 대한 整理를 爲主로하는 것이라면 産業再編成은 그 段階을 넘어선, 보다 積極的인 政策이다. 즉 1次産業(原料産業)과 2次産業(加工産業), 生産財工業과 消費財工業 間을 有機的으로 相互聯關시키는 側面에서 國際競爭力과 聯關시켜 企業과 産業을 再編成하지 않으면 안된다.

(8) 中小企業의 育成近代化

셋째는 中小企業의 救濟, 保護, 育成과 近代化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中小企業은 그 資本構成이 大企業에 비해서 外債依存度는 他人資本이 적고 따라서 그만큼 土着資本의 性格이 強하며 그 所有者 또는 經營者의 經營技術이나 態度와 그 生産技術도 大企業의 그것에 비해 보다 自生的이고 土着産業과의 聯關度가 더 強하다. 大企業의 그것이 外國으로부터의 資本, 技術의 移植에 의해 成立된 면이 強한데 比해서 이들은 보다 自生, 自立的이다.

뿐만 아니라 社會政策的인 면에서 보더라도 勞動集約的이고, 地方에 立地한 것이 많아서 이들의 死活이 미치는 社會的 衝擊이 더 크다.

不實한 大企業 하나에 대한 支援의 年間 數億원을 要하고도 그 結果는 浪費가 되고만 例가 許多하지만 이러한 不實大企業 1個에 所要되는 支援資金으로서 數10내지 100個의 中小企業을 살릴 수 있고 그 効果도 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産業合理化政策은 반드시 中小企業의 育成·近代化에 力點두어야 할 것이다.

(9) 企業風土의 刷新

네째는 企業風土의 刷新과 個別企業經營의 合理化이다. 經濟外的 要因과 兪한 外資導入과 支援融資의 그늘아래 安住하여 企業을 負債의 산미위에 올려 놓고 온갖 先進의 消費와 風習을 누리기에 바쁘고 刻苦, 勤勉, 儉約과 創意性, 進取性 등 本來的 의미의 企業家精神과는 아무런 因緣이 없고 橫財의 機會만을 노리는 그러한 企業家아닌 企業家가 설 땅을 이 나라 위에 날지 놓아서는 안된다. 責任과 信用을 生命으로 삼는 企業家 本然의 姿勢를 確立하고 그러한 氣風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氣風과 經營을 支援, 契勵하는 稅制, 金融, 財政上的 誘因策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곳엔 氣風을 容納하지 않는 氣風과 制度가 金融 및 行政面에서 確立되어야 하며, 同時에 企業人 스스로가 이러한 氣風을 造成해 나아가는 一大 民間運動이 産業合理化 運動의 形態를 통해서 全國的으로 펼쳐나아가야 하겠다.

이와같은 産業合理化運動은 前述한바와 같이 그 概念과 性格이 단순히 企業自體의 經營合理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企業 스스로의 自律的 經費節減策은 그것대로 推進하되 이를 助長하고 學國的인 運動으로 展開하려면 制度的保障으로서의 法制化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大韓商工會議所는 이미 3회에 걸쳐서(1次 69年 12月, 2次 71年 1月, 3次 71年 7月) 産業合理化 促進法律案을 成案하여 關係當局에 提出한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業種別 需給分析에 따라 新規施設을 抑制할 分野 및 施設을 他目的 또는 他業種으로 轉換시켜야 할 分野를 選定하고 支援해야 한다.

이에 屬한 中小企業의 合併과 系列化등의 施策을 強力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나라 企業은 内外資를 포함하여 他人資本에 過度하게 의존하고 關리비부담의 증가가 企業의 赤子を 가일층 惡化시키고 있다.

企業不實化의 要因으로는 落後된 舊式施設 및 技術의 導入, 시장협소등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企業財務構造의 惡化로 인한 企業體質의 약화가 크게 作用했다.

70년도 企業經營分析에 依하면 자기자본의 비율이 23%로 日本의 경우와 거의 같은 水準이나 金融機關의 金利와 私金融의 金利水準을 비교하여 보면 公金融의 金利가 지난 年末 대폭 引下되었으나 아직도 國際收準에 비하면 三倍이고 私金融은 비교대상이 없다.(表4 參照)

<表5> 財務構成의 비교(Composition of Liabilities and Net Worth) 단위 : %

	한 국			日 本		
	1968	1969	1970	1968	1969	1970
他人資本	66.8	73.0	76.7	76.7	77.0	78.5
유동부채	37.6	41.9	43.8	49.5	49.7	49.5
고정부채	29.2	31.1	32.9	27.2	27.3	29.0
自己資本	33.2	27.0	23.3	23.3	23.0	21.5
자본금	20.2	17.3	16.4	12.2	11.8	10.3
자본잉여금	1.6	2.1	1.9	1.1	1.1	1.0
이익잉여금	11.4	7.6	5.0	10.0	10.1	10.2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와같이 他人資本에 대한 依存이 높은데다가 金融費用의 負擔이 加重되니까 企業을 계속 운영하면 他人資本의 比重이 높아지고 外資에 依存하는 경우도 그렇다.

勿論 利率이 우리나라에 比하여 낮은 것은 事實이지만 大部分의 外資導入業體가 人爲的인 底換率基調下에서 經營計劃을 세우고 運營해 왔으나 換率의 現實化와 國際的인 評價調整등으로 當初의 計劃보다 約 30%의 追加負擔을 하게 됨으로써 企業收益으로 償還하지 못하는 事態가 發生하고, 결국 他人資本의 比率를 더욱 높이는 結果에 直面하게 된다.

따라서 當初부터 無謀했던 借款企業은 論外를 하고 建實하게 經營하여 왔고 앞으로의 將來性에 비추어 꼭 필요한 産業에 對하여는 일시나마 元利金償還負擔을 緩和해 줄 수 있는 支援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企業의 自己資本比率의 底位性은 借入金 經營으로 底「스톡크」高成長을 해온 特異한 企業成長「패턴」에서 起因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企業일수록 高成

長期中에는 그런대로 지탱할 수 있지만 成長tempo가 느려질 것이 예상되는 不況期에는 自己資本比率이 낮을수록 마이너스 效果가 增幅되어 自己資本收益率は 극단으로 떨어지고 不安定 經營상태가 되어버림은 經營學上으로 잘 알려진 原理이다.

또 하나는 稅制上의 問題이다. 今年부터는 所得中 50%를 施設積立金으로 社內에 留保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나머지 50%는 配當을 하지 않아도 配當으로 看做하는 紙上配當稅가 아직도 存續하고 있는 바 앞으로 이는 廢止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時點에서 보다 時急한 것은 過去에 日本에서 施行하여 많은 效果를 올린 바 있는 財務構造改善을 위한 特別控除制度의 導入이다.

즉 一定期間內에 借入金의 返濟, 增資 또는 內部留保의 充實 등으로 自己資本比率을 向上시켰을 때에 그 向上比率에 따라 一定率의 金額을 稅額에서 控除해 주는 制度이다.

지금 經濟界가 企業의 體質改善을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原價 10%節減運動을 벌이고 있지만 이 運動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制度의 뒷받침을 없음으로써 비로서 그 實效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우리나라 施設의 老朽化가 加速化되어 生産能率을 低下시키고 있고 大部分의 生産設備가 低勞動裝備率과 低加工段階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勞動生産性은 低水準에 머물러 있는 反面 賃金「코스트」의 壓迫이 增大하고 있다는 點이다.

政府에서도 老朽施設의 代替促進과 短期景氣振作 및 國產機材의 使用促進 등 多角的인 政策目的을 노려 얼마전에 時限附 特利償却制度을 發表, 施行하고 있지만 國產施設이라야 한다는 制約과 企業의 投資餘力의 不足 등으로 큰 期待를 걸기는 어려운 形便이다.

그 외에 纖維産業 등 몇개 業種에 對하여 施設改替 등을 促進시키고 있지만 여러 가지 制約要件으로 期待하는 바 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企業의 경우 間接人件費의 比重이 높아 直接部門과 間接部門의 人員比率이 5.5對 4.5程度로 日本의 6對4, 美國企業의 8.5對 1.5에 比하여 過重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勞動生産性이 賃金上昇率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 큰 原因은 大學卒業者의 管理職賃金이 技能工에 比하여 높게 策定되는 傾向에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企業經營에 있어서는 構造的인 對策으로 機動性 있는 組織體系로 轉換하여 直接部門人員과 間接部門人員의 比率을 再調整하여 生産性向上과 附加價值寄與率에 따라 改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技能工이나 技術者의 숙련도가 낮고 그들의 平均就職率도 높아 技術定着性이 不安定하다.

이에 대한 特別한 賃金制度의 導入이 要請되고 있다. 勞動管理의 諸制度를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勞動効率의 向上을 爲한 對策과 아울러 不況의 長期化에 對備하여 企業經營의 根本的 體質改善이 不可避한 것이니만큼 賃金決定에 있어서는 緊迫한 情勢에 맞아 勞使가 共同으로 企業經濟의 防衛에 協力하여 激變하는 經濟環

境을 克服한다는 決意가 要請되는 바이다.

한편 企業內의 非能率的인 老朽施設은 段階的으로 改替한다든지 廢棄하는 勇斷이 있어야 하겠다.

不況期의 企業經營에 있어서 가장 重視되는 것은 非業務用 또는 不必要한 不動產 또는 施設의 處分인 것이며 이와같은 處分을 促進, 誘導키 위하여 稅務行政上으로도 資金出處의 調査를 하지 않겠다는 約束이 發表되어 있다.

네째 우리나라 企業은 技術의 自生的 開發이 不足하다는 點이다. 新製品, 디자인 包裝技術등 技術改善의 段階가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 急速하게 變還하는 技術社會에서 뒤쫓을 힘도 갖추지 못한채 外國의 産業技術을 導入할때 있어서도 너무나 安易했다는 點을 反省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經營姿勢는 適用하는 技術의 價値를 充分히 考慮하여 高價의 「로얄티」를 支拂하고라도 國際競爭에서 優位에 설 수 있다면 이를 導入해야 할 것이다. 導入한 技術을 蓄積, 運用하는 過程속에서 技術의 自生的 開發體制를 갖추는 것이 企業의 將來性을 決定하는 要因이 된다는 點을 強調하고 싶다.

韓國經濟 乃至 企業이 當面하고 있는 以上과 같은 一連의 問題點들은 너무나도 切迫하게 産業의 合理化 내지 再編成이라고 하는 政策課題를 提起하고 있다. 政府가 指導原理를 確立, 明示하여 産業合理化를 誘導 助長해 나가야 할 것이며 個別企業은 이같은 企業의 內外環境을 直視하고 재빨리 이에 適應할 수 있는 轉機를 捕捉해야 할 것이다.

企業不實의 一般化傾向이 憂慮되고 있는 現時點에 있어 企業은 스스로의 現象 診斷에 對하여 銳敏하게 反應할 수 있어야 한다. 例컨데 우리나라 企業의 總資本 利益率로 볼때 지난 66년에 7.8%에서 70년에는 2.5%로 低下傾向에 놓여 있는 바 個別企業은 企業스스로 損益分岐點比率을 「바로미터」로 삼고 固有한 경제水準을 設定하여 이 限度를 넘었을 때에는 통상적인 合理化對策으로는 不可能해지고, 非採算部門의 廢合, 機構改革 또는 人員整備 등 構造對策을 講究해야 한다.

企業人의 原價意識에 투철하고 急變하는 環境에 適應하는 姿勢야 말로 經濟的 難局에 對處하는 進取的 經營戰略이라 생각한다. <表 6>

<表6> 총자본이익율(Net Profit to Gross Capital)

업종별	1969	1970	업종별	1969	1970
광업	1.81	2.72	도·소매숙박업	3.72	1.82
제조업	3.67	2.49	운수 및 창고업	5.12	3.54
건설업	6.62	2.36	부동산업	7.14	12.19
기타업	3.02	3.14	서비스업	4.52	1.01

자료: 한국은행